



### 합찬 우승 샷

8일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PAVV 인비테이셔널에 참가한 신지애가 4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독감 투혼’ 신지애 우승

(합평 골프고 3년)

### 올 2승 일구며 박세리 이후 10년만에 시즌 상금 2억 돌파

#### 여자골프 PAVV인비테이셔널

독감에 걸려 링거주사와 물만 마시면서 경기를 뚫 ‘투키’ 신지애(18·하이마트·PRGR·합평 골프고 3년)가 한국여자프로골프 PAVV인비테이셔널에서 정상에 올랐다.

신지애는 8일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골프장(파72.6천23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2언더파 70타를 쳐 3라운드 합계 204타로 또 다른 ‘투키’인 정혜진(19·하이마트)을 1타차로 제쳤다.

특히 신지애는 우승 상금 6천만원을 받아 시즌 상금이 2억800만원으로 1996년의 박세리(29.CJ) 이후 10년만에 시즌 상금 2억원을 돌파했다. 박세리처럼 ‘투키’때 이룬 기록이다.

박세리는 당시 4승을 거둬 2억원을 돌파했으나 신지애는 올해 메이저대회인 한국여자오픈을 우승하는 등 7개 대회에서 2차례 우승을 포함해 톱5에 5차례 드는 꾸준한 성적으로 상금액을 늘렸다

신지애는 박희영(19·이수건설)에게 빼앗겼던 상금 랭킹 선두 자리를 탈환했고, 신인상 포인트로 경쟁자인 안선주(19·하이마트)를 크게 제치는 등 다관왕 획득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

신지애는 올해 아직 9개 대회 정도가 남아 있어 상금액이 큰 대회에서 우승을 추가할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는 신지애.

일궈내는 투지와 끈기를 발휘했다.

첫날 4언더파 68타를 쳐 선두와 2타차 공동 4위에 오른 신지애는 2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 단독 선두로 도약했다.

신지애는 이날 함께 라운드를 펼친 정혜진이 홀인원을 하는가 하면 15.16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떨구 1타차로 따라붙자 16번홀에서 2.5m 거리의 어려운 버디퍼트를 성공시켜 2타차로 벌렸고, 정혜진이 버디를 잡은 마지막홀에서 1m 거리의 중압감 넘치는 퍼퍼트를 차분하게 성공시켜 1타차 리드를 지켜냈다.

신지애는 “불안, 불안했는데 우승해서 너무 기쁘다. 마지막 홀에서는 많이 떨렸다”고 말했다.

손혜경(27·현대백화점)과 김보경(20·이동수골프)이 함께 8언더파 208타로 공동 3위에 입상했다.

초청 선수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의 장자타 브리타니 린시킴(미국)이 함께 7언더파 209타로 공동 5위를 했고 장정(26·기업은행)은 함께 6언더파 210타로 공동 7위에 올랐다.

작년 대회 챔피언이자 신지애의 상금왕 라이벌인 박희영은 1라운드에서 규정 위반을 모른 채 스코어를 오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실격해 아쉬움을 남겼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천하장사’ 이태현 ‘프라이드’ 통할까

### 日 종합격투기 내일 데뷔전

민속씨름 ‘천하장사’ 출신 이태현(30)이 일본 종합격투기 프라이드에서 통할 수 있을까.

이태현은 10일 일본 사이타마현 슈퍼아레나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무차별급 그랑프리 2006 결승전’에 참가해 번외경기인 ‘원매치’에 출전, 205cm에 121kg의 거구 히카르도 모라이스(39·브

라질)와 데뷔전을 치른다.

지난달 8일 프라이드 진출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서투른 감도 없이 이태현은 자신감에 차 있다.

이태현은 프라이드 주최사 DSE와 인터뷰에서 “컨디션은 좋다. 첫 프라이드 경기지만 좋은 의미로서 긴장하고 있다”며 “모라이스는 크고 강한 것 같다. 하지만 내 역시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필사적으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라이스는 프라이드 전적이 2전2패지만 종합격투기 경력이 12년이나 되고 브라질 유술을 주특기로 그라운드와 관절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식 전적도 9승1무4패로 통산 20여 차례가 넘는 풍부한 실전 경험을 자랑하고 있다.

격투기 전문가들은 ‘격투기 초보인’ 이태현이 이처럼 노련한 모라이스를 상대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 초반에 당황하지 않고 가능한 빨리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한국축구, 베트남 등 비교적 약체와 한조

## 20년만의 아시안게임 우승 노린다

한국 축구가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바레인,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비교적 순순인 상대와 한 조에 편성됐다.

8일 도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구기종목 조 편성에 따르면 한국은 모두 30개 팀이 참가하는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바레인, 베트남, 방글라데시와 함께 B조에 속했다.

아시안게임 축구는 수준이 떨어지는 8개 팀이 예선 1라운드를 해 2개 팀이 2라운드에 오르고 2라운드에서는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 각 조 1, 2위가 16강에 직행하고 조 3위 팀 중 4개 팀이 와일드카드로 16강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2라운드부터 출전

한다.

한국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뒤 1990년 방콕대회 3위, 1994년 히로시마대회 4위, 1998년 방콕대회 8강 탈락, 2002년 부산대회 3위로 금메달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핌 베이백 대표팀 감독은 “아시안게임 엔트리를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리스트를 취합했다”며 20년 만의 우승 꿈을 부풀리고 있다.

여자 축구는 최근 세계청소년대회를 제패한 북한을 비롯해 태국, 대만, 베트남과 한 조에 속해 쉽지 않은 예선 일정을 치르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승엽은 이가와 킬러”

### 日언론 보도...올 시즌 5 홈런·8 타점



<이승엽>

“외야석에는 뛰는 흰 공을 잇따라 바라보았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7일 이가와 게이(27·한신 타이거스)로부터 홈런 2발을 빼앗자 일본 언론은 ‘이승엽이 이가와 킬러’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산케이 스포츠’는 8일 ‘이승엽이 이가와 킬러’, ‘또 이승엽에게 맞은 이가와..뽀이 된 에이스’ 등 제목으로 뽑은 기사에서 이승엽과 이가와와의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을 소개했다.

이승엽은 전날 고시엔구장 한신전에서 1회에 이가와와 슬라이더를 통타해 우중간 답을 넘는 투런아치를 그렸고 4회에도 슬라이더를 때려 우월 1점포를 터뜨렸다. 센트럴리그 선두 주니치 드래곤스를 따라잡겠다는 의욕을 불태우던 한신의 6연승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은 두 방이었고 이승엽에게 한일통산 400호와 401호를 때려 나눴던 이가와에게는 치욕이었다.

이승엽은 올 시즌 이가와를 상대로 12타수 6안타를 기록했다. 6안타 중 홈런이



<이가와>

무려 5개였고 타점은 8개로 ‘이가와 킬러’라고 할만한 전적이다.

한편 ‘스포츠 호치’는 “이승엽이 홈런 선두를 굳게 지켰고 마쓰이 히데키(뉴욕 양키스)의 미·일 통산 홈런에 대등한 407호 홈런을 터뜨렸다”고 보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페더러 4강 스매시

‘황제’ 로저 페더러(세계랭킹 1위·스위스)가 8일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US오픈테니스 8강전에서 제임스 블레이크(7위)에 위력적인 서비스를 넣고 있다. 페더러는 3-1로 블레이크를 제압, 4강에 진출했다. /AFP·연합뉴스

## 하인스 워드 개막전 터치다운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0·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슈퍼볼 2연패를 노리는 피츠버그의 개막전 승리를 도왔다.

워드는 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피츠버그 하인스필드에서 벌어진 마이애미 돌핀스와 정규시즌 개막 경기에서 7-7로 맞선 2쿼터 1분56초를 남기고 쿼터백 찰리 배치의 7야드짜리 짧은 패스를 잡아 터치다운, 팀의 28-17 승리를 도왔다.

워드는 모두 다섯 차례 패스를 잡아내 크리스 챔버스(마이애미)와 함께 두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리시브(전전 53야드)를 기록했다.

워드는 지난 달 5일 훈련을 하다가 왼쪽 허벅지를 다친 뒤 네 차례 시범경기를 모두 결장하는 등 몸이 100%가 아니었으나 막상 실전에 들어서자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였다.

피츠버그는 시범경기에서 4전 전패를 하는 등 주춤했으나 예상치 않은 선수들에게서 잇따라 득점이 터지면서 낙승했다. 맹장염 수술을 받아 결장한 피츠버그 주전 쿼터백 로슬러스버거 대신 나온 배치는 터치다운 패스 3개 등 패스 15개를 성공해 제 몫을 다했고 수비수 조이 포터도 막판에 가로채기로 손쉬운 터치다운을 넣었다.